광주시, 문화ODA '몽골 프로젝트' 국제 예술교류 확대

광주 미디어아티스트-몽골 청년 예술가
2개월간 프로젝트 협업 문화콘텐츠 제작
몽골예술생태계 인프라 구축 실질 지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광주 출신 미디어아티스트들이 몽골 청년과 예술 콘텐츠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몽골과 '2025 아시아도시 간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국제적 예술 교류의 장을 넓혔다.

특히 광주 출신 미디어아티스트와 몽골 청년 예술가 간 협업으로 전통문화와 미디어아트를 융합한 예술 콘텐츠를 창작하는 등 새로운 예술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지난 4월29일부터 6월21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일원에서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Asia Culture ODASIS(아시아 컬처 오다시스) 몽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몽골 전통 음악과 무용, 그리고 현대 미디어아트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 작품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몽골 청년예술가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 프로젝트는 '몽골 전통문화(음악·무용)와 미디어아트 융합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몽골 시티대학교(Mongolia Citi University)에서 미디어아트 역량 강화 사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후 지난 5월 한 달간 광주 출신 임용현·문창환 미디어아티스트가 멘토 예술가로 참여해 미디어아트·무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몽골 청년예술가들과 협업한 창작 워크숍이 이어졌다.

워크숍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울란바토르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몽골 문화예술위원회, 현대미술단체 BLUE SUN이 협력했다.

광주시는 미디어아트 분야의 풍부한 인적·기술적 자원을 바탕으로 현대미술 인프라가 열악한 몽골에서 국제 문화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실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작품들은 울란바토르 비엔날레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4개(A·B·C·D) 팀은 지난 6월18일 울란바토르 비엔날레 부대행사 '몽골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작품 결과보고회'를 통해 '몽골의 자연과 인간 그리고 현대와 과거'라는 주제로 각기 다른 콘셉트의 공연을 선보였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B팀의 '상호 연결의 춤'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몽골의 전통 노래와 춤, 미디어아트를 융합해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몽골 예술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몽골 비엔날레의 국제성 강화, 현지 창작 기반 확대, 지속 가능한 예술가 발굴 등을 이끌어내는 초석이 됐다.

광주시는 협력사업으로 몽골 시티대학교에 미디어아트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기증했고, 몽골 시티대학교는 시각디자인과 학생 및 지역 청년예술가에게 개방해 교육자재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 장비를 기반으로 한 정규 커리큘럼 운영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몽골 내 지속가능한 미디어아트 교육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 세대 창의인재 양성에도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신하 문화정책관은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쌓아온 역량과 국제협력 경험이 몽골 예술 생태계의 자립 기반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아시아 창의도시들과 연대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첫 입교생 133명 선정

道, 사업화비 2천400만원 등 지원
분야별 전문가 코칭프로그램 제공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실무협의회.

전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첫 입교생으로 총 133명(예비창업자·5년 이내 창업자)을 선정했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역특화기술 분야 대학생·청년의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남도의 역점 사업이다. 지난달 17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대학생·청년 등 총 230명이 지원했다.

전남도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발표평가 등을 진행해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특화기술 분야 133명을 선정했다.

선발된 기업엔 최대 2천400만원(매월 100만원·최대 2년)의 창업기술 사업화비를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1대1 멘토링과 경영·회계·법률·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제공된다.

16개 대학·출연기관 등의 창업·보육 공간을 중심으로 기술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 인증,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선정된 청년·벤처 창업가가 기술창업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 전남 벤처·창업 생태계를 이끌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년창업가의 도전과 열정이 성공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대신협 "새 정부 지역방송 편향 정책 안돼"

언론재단 광고대행수수료 출연 관련 성명
지역신문과 균등한 공적 지원 체계 촉구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 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정부 및 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재원화를 포함한 새 정부의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지역방송에 편향되지 않고 균등하게 국정 로드맵에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확대와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제작지원을 국정로드맵에 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신문 업계가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등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협은 1일 '새 정부 지역방송 편향적 정책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의 정부 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방송기금 균등 출연을 요구했다.

특히 대신협은 정부·지자체 광고대행 수수료의 상당액이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전 신문·방송업체 및 구성원들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 광고대행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양 기관으로 분리하면 정부광고 관리·운영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정부광고법의 제정 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대신협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새 정부가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을 펴려면 마땅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함께 균등히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신협은 "모든 신문·방송 산업을 아우르며 언론단체 지원은 물론, 종사자들의 교육 연수 미디어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언론진흥기금 감축으로 인해 미디어산업 지원 체계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역방송이 그러하듯 지역신문 역시 지역소멸위기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지역미디어 산업 기반을 떠받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신협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근간으로 삼아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재원화를 포함한 균등한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 지역신문 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와 정부 예산 및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명시화 등을 요청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